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용 질서 확립하겠다”

●김남진 제7대 목포교도소장 취임

공정한 절차 따른 수용 처우·업무규정 숙지 등 강조 “직원간 신뢰·협력 업무·교정행정 발전 필수” 당부

“모두 함께 노력해 더 나은 직장을 만들도록 합시다.”

김남진(54·사진) 제7대 목포교도소장이 지난 15일 취임했다.

김 소장은 “목포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교도소장에게 부여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한 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소장은 업무에 대한 소신도 언급했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과 통일된 수용 처우”를 강조하며 “한정된 인원이 많은 수의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집행에 있어 통일된 절차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수용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용자를 처우함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지양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소장은 “업무에 필요한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관한 규정



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업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것이 직원들을 위한 사실임을 명심해 달라”고 재

차 강조했다.

더불어 “원활한 업무 수행 및 교정행정 발전에는 직원들 간 신뢰와 협력이 필수”라며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강점과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더 나은 목포교도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항상 직원들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소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나부터 솔선수범해 모범이 되는 교도관이 될 것을 약속한다”며 “소통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취하면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진 소장은 화순 출신으로 1997년 7급 공채로 순천교도소(교정간부 4기)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서기관 승진),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광주지방 교정청 보안과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송원대, 코레일 등 공채 22명 합격



송원대학교는 16일 “올해 상반기에 코레일 등 공채에 22명이 합격하며 매년 합격률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합격자는 코레일 3명, SR(수서고속철도) 1명, GTX 5명, 서울메트로 1명, 김포경전철 3명, 남서울경전철 1명, 다원시스(철도차량 제작) 2명, ㈜이디테크놀로지(철도신호) 1명, 코레일네트웍스 1명, 해운대블루라인 및 관광업 3명, 우진PRT 1명 등이다.

코레일에 합격한 문기현(사진) 학생은 “철도 경영학도가 특성과 학과여서 처음에는 약간 적응이 힘들었지만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배들의 멘토링에 힘입어 졸업과 함께 철도 분야 최고 공기업인 코레일에 입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철도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봉선화 연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봉선화 연정’ 등으로 1980-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현철이 15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과거 현철의 매니저를 지낸 작곡가 정영수는 16일 “현철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아직 장례 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임시로 안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942년생인 고인은 27세 때인 지난 1969년 ‘무정한 그대’로 데뷔했다. 그러나 당시 인기를 끌던 나훈아·남진 등과 달리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오랜 무명 생활을 보내야 했다.

현철은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앞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 가수로 도약했다.

특히 1988년 발표한 ‘봉선화 연정’으로 1989년 KBS ‘가요대상’ 대상을 품에 안은 데 이어 이듬해인 1990년에도 ‘싫다 싫어’의 히트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는 2010년대까지 신곡을 내며 활동했으나 2018년 KBS ‘가요무대’에 출연해 히트곡 ‘봉선화 연정’을 부르는 도중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걱정을 샀다.

현철은 수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장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해 오랜 기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때문에 방송인 송해와 가수 현미의 장례식에도 함께 하지 못했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NIE 2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실기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공부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우성(월곡중 1)·양세형(월곡초 6)·김대승(월곡초 6)·양세인(월곡초 4) 학생은 편집전문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을 활용해 직접 사진과 기사를 배열하는 등 교육에 열의를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힐링 원예 치료’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광주 서구 쌍촌시영3단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힐링 원예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지 내 공동화단 조성과 ‘흙가드닝’ 체험이 함께 이뤄졌으며,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손을 보았다.

입주민들은 화분을 만들면서 정서적 안정을 도

모하고 소통하며 따뜻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정민권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일상 속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통해 입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품격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커뮤니티 중심의 주민 참여형 복지공동체 활동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전남대병원 등 7곳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협약

광주지역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남대학교병원 등 광주지역 7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16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8동 5층 회의실에서 ‘광주시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광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새빛콜), 광주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광주시 공공

보건의료지원단, 지역책임의료기관 광주기독병원, 광주시 동구보건소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7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계 사업 수행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동 협력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윤현주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광양제철,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등 봉사활동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읍사무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로당에서 어르신 장수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광양읍 어르신들과 광양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광양제철소가 기획했다.

봉사활동에는 이도령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해 장수사진 촬영팀, 광양시장, 권영엽 국회의원, 9개 재능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참가 사진재능봉사단과 깎아헤어 재능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한 헤어·메이크업과 촬영용

의상을 제공했으며 이 밖에 발바닥 재능봉사단, 뜨개질 재능봉사단, 네일아트 재능봉사단, 전래놀이 문화 재능봉사단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불거리를 제공했다.

170여명의 어르신들이 장수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에 새겼으며, 촬영된 사진은 인화 및 액자 보관 작업을 거쳐 추후 전달될 예정이다.

광양읍의 한 어르신은 “장수사진을 찍어보고 싶었으나 쉽사리 찍어볼 기회가 없었다”며 “요청에 응해 행복한 추억을 선사해준 광양제철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순직교사 1주년 추모 현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6일 시교육청에 마련된 순직교사 1주년 추모공간을 찾아 현화하고 묵념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장성도서관, 밴드 ‘판’ 전래동화 콘서트 성황

장성도서관은 “최근 온 가족과 함께하는 밴드 ‘판’의 전래동화 콘서트 ‘얼씨구 좋다’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장성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인문학으로 잇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구, 기타 등 여러 악기로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전래동화 4종을 배우들이 생동감 있게 옛 동요와 국악장단의 창작곡들을 연주하는 공연이다.

김한철 장성도서관장은 “유아·아동기부터 도서관 방문을 통해 책과 공연을 융합시킬 수 있는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도서관’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역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농협, 고향사랑기부금 담양군 전달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최근 담양에 연고자 있는 출향 임직원들이 조성한 고향사랑기부금 830만원을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오정운 농협중앙회 부장 등 7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담양이 고향이거나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담양군내 7개 농협과 타지역 농협과의 교차기부부를 통해 2천만원을 조성했다. 또한 군지부 임직원 20여명이 가족·지인에게 홍보해 1천500만원을 모금, 담양군에 기탁하는 등 제도 시행 첫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담양군으로의 기부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기복 담양군지부장은 “담양 연고 출향 직원들이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본사손님

▲최무송 광주 북구의회의장